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후조리원 셀프수유 행위 관련 행정지도 요청

1.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젓병을 물려 놓은 ‘셀프수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100일 미만의 영아의 경우 기도와 식도가 약해 아기가 누워서 혼자 젓병을 물고 분유를 먹을 경우 폐렴이나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분유를 먹는 양과 속도 조절 능력이 없어 질식사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셀프수유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 따라서, 귀 시?도, 시?군?구에서는 관할 산후조리원이 셀프수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건강증진과장), 부산광역시(건강증진과장), 대구광역시(보건건강과장), 인천광역시(보육정책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건강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경기도지사(건강증진과장), 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주무관 사회복지사무관 출산정책과장

협조자